

‘자통법’ 4일부터 시행

〈자본시장 통합법〉

어떻게 달라지나

고객 정보없이 투자 권유 못한다

투자자 보호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증권사·자산 운용사 등 영역 통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자통법 시행은 한국 자본시장 발전에 전환점이 될 사건으로 자본시장 확대와 투자자 보호가 핵심이다.

◇ 자본시장 저변 확대=자통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칸막이로 나뉘었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이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된다.

또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나누고, 투자자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등으로 구분해 금융기능을 중심으로 규율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도 특징이다. ‘포괄주의 도입’이란 법률에서 금융상품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 향후 출현할 수 있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포괄해 규율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맞춤형’ 투자상품 가능=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 범위가 확대돼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등에도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주요 투자대상자산을 기준으로 펀드를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펀드 및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재분류하고,

▲자통법=금융업종간의 겸업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의 취급범위를 넓히는 한편 투자자 보호, 현행 업종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불린다.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에서 투자대상 자산 제한이 폐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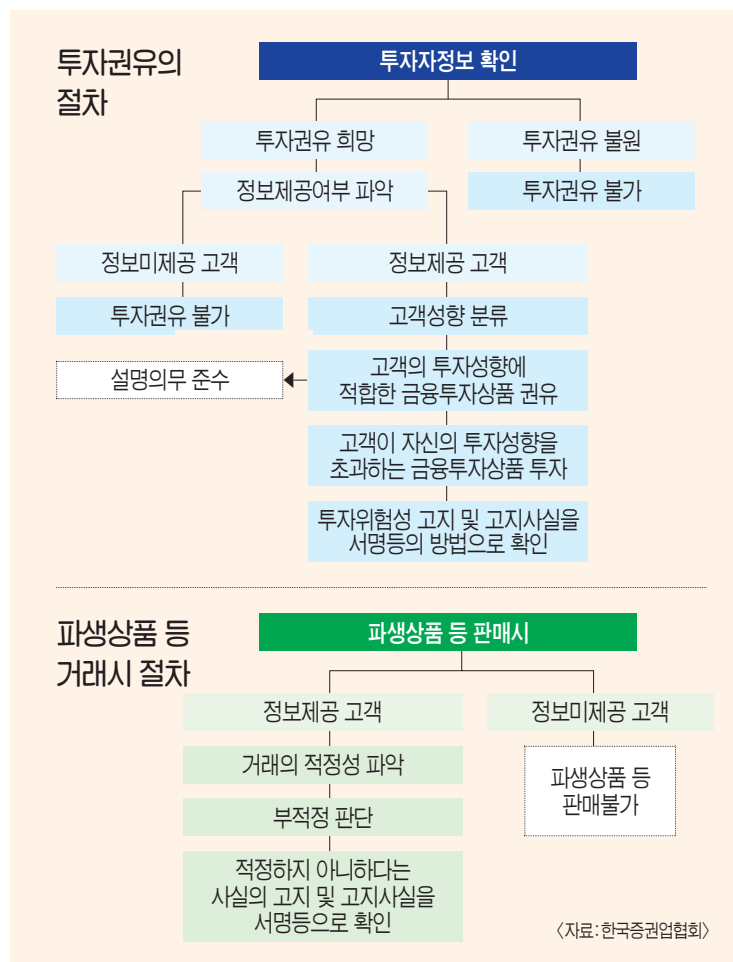
투자대상 자산의 제한을 받지 않는 혼합자산펀드가 신설되고, 헤지펀드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보다 다양한 펀드 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 강화=선진국 수준의 투자권유 제도가 도입되고, 이해 상충 방지 체계 도입 및 발행공시의 규제 적용범위 확대, 투자광고 규제 도입 등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우선 투자권유 제도 도입으로 투자자들은 ‘노우 유어 커스토퍼 룰(Know-Your-Customer-Rule)’과 ‘적합성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노우 유어 커스토퍼 룰’에 따라 투자상품을



때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파악하고,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그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때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사전에 구분해두고 그에 따라 상품을 권유, 설명하게 된다.

투자자의 성향을 안정형(1등급),

형(2등급), 위험 중립형(3등급), 적극 투자형(4등급), 공격투자형(5등급) 등으로 분류하게 된다. 투자상품 역시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을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중요내용을 허위설명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을 체결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상관없이 환승론을 신청할 수 있다.

환승론을 신청하려면 신용회복기금 콜센터(1577-9449)나 홈페이지(www.e2af.or.kr)를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캠프 분사 또는 9개 지사의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캠프는 오는 5월부터며 원리금은 균등 분할해 상환해야 한다.

기존 고금리 채무가 있으면서 작년 9~12월 3천만 원 이하의 대출 약정



전통 손 메주 구경하세요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공동으로 1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열리고 있는 ‘메주 박람회’에서 고객들이 담당 기술자(오른쪽)고려전통식품 대표가 재래식으로 만든 손 메주들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C&重 해외법인에 매각 추진 전남 경제계, 회생 가능성 관심

C&중공업의 최대 채권금융기관인 메리츠화재가 C&중공업을 퇴출하는 대신 해외법인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전남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퇴출이 확정되면 C&중공업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커지며 제3자에 매각될 경우 회생 가능성이 커져 위축된 전남 서남

권 조선업이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C&중공업 등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해외업체 2곳과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는 앞서 지난달 30일 채권단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가 열리지 않아 무산됐다. 이날 채권단회의에서는 D등급을 받

은 C&중공업에 대해 워크아웃 중단과 퇴출이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으나 메리츠화재가 워크아웃 중단에 반대하며 제3자 매각을 추진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C&중공업 협력업체 관계자는 “기업이 사라지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3자에 인수되더라도 회사가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매각 추진 소식에 희망을 걸었다.

전남도도 C&중공업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보증 상품을 개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C&중공업 제3자 매각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재건축 아파트 ‘소형’ 의무 폐지

국토해양부 오늘부터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규정이 2일부터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대 85㎡이하 주택의 비율을 75%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서 규모별 비율을 85㎡이하 60%, 85㎡초과 40%로 정한다. 지금은 3개 규모로 나누고 60㎡이하와 60㎡초과~85㎡이하, 85㎡초과의 비율을 2:4:4로 하고 있다.

개정 비율이 시행되면 재건축할 때 60㎡이하 주택을 20% 짓도록 한 규정이 없어지고 85㎡이하를 60%만 지

으면 된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 2일부터는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기존 주거전용면적보다 10% 이내에서 늘어날 경우에는 평형별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10%가 늘어날 경우 1대1 재건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규모별 비율(2:4:4)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올 주택신용보증
7조5천억으로 확대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비롯한 주택신용보증 목표를 7조5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20% 늘렸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절반인 3조7천억 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보증에 쓰기로 했다.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입주자의 임대차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를 종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저신용자, 싼이자 갈아타기 확대

캠코, 신청 자격 1,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로

3천만 원 이하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신용등급이 낮은 채무자도 이달부터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이자가 싼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캠코는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환

승론(전환대출) 신청 자격을 대출액 1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과 등록 대부업체 등에서 3천만 원 이하를 연 30% 이상의 고금리로 빌려 정상적으

로 갖고 있는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연 20% 안팎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3년이며 원리금은 균등 분할해 상환해야 한다.

기존 고금리 채무가 있으면서 작년 9~12월 3천만 원 이하의 대출 약정

을 체결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상관없이 환승론을 신청할 수 있다.

환승론을 신청하려면 신용회복기금 콜센터(1577-9449)나 홈페이지(www.e2af.or.kr)를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캠프 분사 또는 9개 지사의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캠프는 오는 5월부터며 원리금은 균등 분할해 상환해야 한다.

기존 고금리 채무가 있으면서 작년 9~12월 3천만 원 이하의 대출 약정

을 체결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상관없이 환승론을 신청할 수 있다.

환승론을 신청하려면 신용회복기금 콜센터(1577-9449)나 홈페이지(www.e2af.or.kr)를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캠프 분사 또는 9개 지사의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캠프는 오는 5월부터며 원리금은 균등 분할해 상환해야 한다.

기존 고금리 채무가 있으면서 작년 9~12월 3천만 원 이하의 대출 약정

로또복권 (제322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9 18 29 32 38 43	20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904,544,700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5,673,956	29
3 5개 숫자 일치	1,300,031	1,465
4 4개 숫자 일치	56,158	67,829
5 3개 숫자 일치	5,000	1,085,740

팝콘복권 (제145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2조 375047
2	1억	5조 173655
3	1천만	4조 652155
4	1백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5	50만	01847
6	2천	6303
		각조 98
		각조 41
		각조 22
		각조 5
7	1천	1
		각조 9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신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80 / 02-722-0100

11215300-9999